

# TheCityUK

International Conference 2025



# TheCityUK International Conference 2025 주요 내용

(2025.5.2., 역외금융센터정책팀)

## 1 행사 소개

### □ 개요

- (행 사 명) TheCityUK Internatioanl Conference 2025
- (일 시) 4. 24.(목) 17시~21시(KST)
- (장 소) 런던 ※ 온/오프라인 동시진행
- (주최/후원) TheCityUK / Freshfields, StateStreet
- (참 석 자) 영국 정부 및 공공기관, J.P. Morgan · Lloyd' s · Standard Chartered 등 금융  
업계, KPMG · PwC 등 금융서비스업계, FCA 등
- (논의 주제)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, 그리고 영국이  
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 · 강화하기 위한 전략 모색

시간(KST)	순서	발표자
17:00~17:10	Chief Executive Officer's welcom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Miles Celic OBE</b>, Chief Executive Officer, TheCityUK</li> </ul>
17:10~17:20	Chair's addres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Anne Richards DBE</b>, Chair of the Board, TheCityUK</li> </ul>
17:20~18:05	Panel session I : Reimagining trade relationship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Claire Wills</b>, Partner, Freshfields (Chair)</li> <li>• <b>Iain Anderson</b>, Executive Chairman, H/Advisors Cicero and Non-Executive Director,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</li> <li>• <b>Liz Claydon</b>, Global Head of Deal Advisory &amp; Life Sciences, Vice Chair and Partner, KPMG</li> <li>• <b>Baroness Swinburne</b>, Chair,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</li> <li>• <b>William Wright</b>,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, New Financial</li> </ul>
18:05~18:25	In convers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Andrew Griffith MP</b>, Shadow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and Trade</li> <li>• <b>Nicola Watkinson</b>, Managing Director, International, TheCityUK (Chair)</li> </ul>
18:55~19:40	Panel session II : Adapting to shifting dynamic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Chris Hayward</b>, Policy Chairman, City of London Corporation (Chair)</li> <li>• <b>Emma Lovett</b>, Executive Director, Markets Digital Assets, J.P. Morgan</li> <li>• <b>Cyrus Pocha</b>, Partner, Freshfields</li> <li>• <b>Anand Sambasivan</b>, Co-Founder, Chief Executive Officer, PrimaryBid</li> <li>• <b>Cassandra Vukorep</b>, Chief Data Officer, Lloyd's</li> </ul>
19:40~20:00	In convers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The Rt Hon Douglas Alexander MP</b>, Minister of State (Minister for Trade Policy and Economic Security) at the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and Minister of State at the Cabinet Office</li> <li>• <b>Emma Rachmaninov</b>, Partner, Freshfields (Chair)</li> </ul>
20:00~20:45	Panel session III : Servicing high growth corridor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Adrian Cartwright</b>, Senior Partner, Clifford Chance (Chair)</li> <li>• <b>Michael Eldridge</b>, UK Country Head, State Street</li> <li>• <b>Suwei Jiang</b>, Lead Partner of China and Southeast Asia Business Group, Strategic International Markets, PwC</li> <li>• <b>Farisa Zarin</b>, Global Head of Group Public and Regulatory Affairs, Standard Chartered Bank</li> </ul>
20:45~21:05	Keynote speec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Jessica Rusu</b>, Chief Data,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fficer, Financial Conduct Authority</li> </ul>
21:05~21:10	Closing remarks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Miles Celic OBE</b>, Chief Executive Officer, TheCityUK</li> </ul>

## 2 주요 내용

### 가 Panel sessions I

- 주제 : Reimagining trade relationships
- 논의 내용 :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주요 시장들이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 영국의 무역·금융업 경쟁력 유지방안
  - 영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전략적 과제
  - 영국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조언

#### □ Speakers

- 좌장: Claire Wills, Partner, Freshfields
- 패널리스트
  - Iain Anderson, Executive Chairman, H/Advisors Cicero and Non-Executive Director,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
  - Liz Claydon, Global Head of Deal Advisory & Life Sciences, Vice Chair and Partner, KPMG
  - Baroness Swinburne, Chair,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
  - William Wright, Founder and Managing Director, New Financial

#### □ 주요 내용

- Brexit 이후 영국의 정책 방향과 전략적 비전의 부재에 따른 영국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(William Wright, New Financial & Iain Anderson, H/Advisors Cicero)
  -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며, 이제는 신흥 시장(ASEAN, 아프리카, 라틴아메리카) 중심의 질서로 재편 중
  - 많은 부분을 동시에 개혁하려 하지 않고, 소수 핵심 분야에 전략적 선택과 집중 필요
  - 영국은 아직도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 시장으로, 다양한 국가와의 파트너십도 필요
- 곧 발표될 산업 전략(Industrial strategy)은 명확한 투자 메시지를 가져야 하며, 금융업은 산업 전략의 핵심(Iain Anderson, H/Advisors Cicero)
  - 명확한 산업 전략을 통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왜, 언제, 어떻게 영국에 투자해야 하는지

제시할 수 있어야 함

- 혼란스러운 지금이야말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 (Baroness Swinburne,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& Liz Claydon, KPMG)
  - 영국의 한 고위 은행가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‘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미국이 벌이는 일이 영국과 유럽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’ 고 말함
  - 10년 간 유럽 기업이 미국 시장으로 대거 이탈했지만, 가장 최근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기록적으로 하락함
  - 규제환경 정비와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인재 유출 방지
- 바젤Ⅲ 등을 참고하면서도 단순·명확한 규제 환경 필요(Baroness Swinburne,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
  - 기존 EU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규제가 덧붙여져 복잡성 증가
  - 미국은 금융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민관 TF를 비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며, 영국도 유사 대응 필요
  - AI, 디지털 자산 등 미래 구조에 맞춘 ‘향후 100년을 준비하는’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

주제 : Adapting to shifting dynamics

 논의 내용

- 금융 및 전문 서비스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영국의 대응 방안
- 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혁신과 협력

 Speakers

- 좌장: Chris Hayward, Policy Chairman, City of London Corporation
- 패널리스트
  - Emma Lovett, Executive Director, Markets Digital Assets, J.P. Morgan
  - Cyrus Pocha, Partner, Freshfields
  - Anand Sambasivan, Co-Founder, Chief Executive Officer, PrimaryBid
  - Cassandra Vukorep, Chief Data Officer, Lloyd's

 주요 내용

-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(Emma Lovett, J.P. Morgan)
  - 디지털 자산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, 기존의 자산을 디지털화하거나 24시간 거래 등 금융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생각
  - 금융업은 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30년 전의 전통적 규제에 묶여 있음. 안전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기술이 생긴 만큼 유연한 규제가 가능할 것
  - 기존 시스템을 AI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것에도 세금 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
- 금융당국의 규제 적시성·유연성 및 전문성 강조(Cyrus Pocha, Freshfields & Cassandra Vukorep, Lloyd's)
  - “진짜 리스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” (선 시도 후 수정 해나가는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언급)(Cassandra Vukorep, Lloyd's)
  - “일부 규제기관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” (Cyrus Pocha, Freshfields)
  - 혁신을 위해선 규제기관이 실패를 처벌하기보단 허용하는 문화 조성
  - FCA가 AI를 규제하려면 기술 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, 규제당국 자체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

- 2년짜리 로드맵은 암호자산 시장 속도를 고려하면 너무 느린 대응, 균형 잡힌 규제와 신속한 실행을 통한 신뢰성 확보, 인프라·조세정책 등 종합적 지원 필요
  - 영국은 세계 1위의 핀테크 허브로, ‘리더십 유지 전략’ 필요(Anand Sambasivan, PrimaryBid)
    -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잘 설계됐지만 실제 기술 구현·상용화까지 이어지지 못함
    - 미-영 공동 샌드박스를 만들자는 언급도 나오는 만큼 국제 규제에 대한 접근도 필요
  - 고급 인재 및 투자자 이탈 사례 다수, 인재 유입뿐만 아니라 ‘정착’을 위한 정책 필요(Anand Sambasivan, PrimaryBid & Cassandra Vukorep, Lloyd’ s)
    - “영국을 임시 정류장이 아닌 ‘집’으로 만들어야 한다” (Cassandra Vukorep, Lloyd’ s)
    - 영국의 반(反)이민 정서와 높은 세율은 글로벌 인재 유치에 걸림돌
    - Non-Dom 정책\* 철회 가능성에 고급 인재와 초기 투자자 이탈 사례 다수
- \* Non-Dom(Non-Domiciled) 정책 : 영국 내 소득에 과세되지만,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 송금 시에만 과세하는 정책

□ 주제 : Servicing high growth corridors

□ 논의 내용 : 중국-사우디아라비아, ASEAN, 인도-아프리카 간의 새로운 고성장 무역 관계(corridors)를 중심으로, 영국이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지원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

- 글로벌 관점에서 지정학적 요인과 거시경제적 요인이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
- 이러한 상황을 영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
-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정부 및 규제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

□ Speakers

- 좌장: Adrian Cartwright, Senior Partner, Clifford Chance
- 패널리스트
  - Michael Eldridge, UK Country Head, State Street
  - Suwei Jiang, Lead Partner of China and Southeast Asia Business Group, Strategic International Markets, PwC
  - Farisa Zarin, Global Head of Group Public and Regulatory Affairs, Standard Chartered Bank

□ 주요 내용

- 미국의 관세 발표 다음 날, theCityUK가 주최한 '인도-영국 금융 파트너십' 회의에서 '우리는 이제 양자적(bilateral) 세계에 살고 있고, 다자간(multilateral) 사고방식은 잊어야 한다. 이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' 는 인상적인 발언이 나왔음(Adrian Cartwright, Clifford Chance)
- 인구 구조 · 기술 · 기후 변화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중(Adrian Cartwright, Clifford Chance)
  -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양자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고방식의 전환 필요
  - (인도) 걸프협력회의(GCC)<sup>1)</sup> 지역 국가들은 인구의 약 50%가 30세 이하, 창의적 · 혁신 기술을 빠르게 수용 가능

1) 걸프협력회의 (Gulf Cooperation Council), : 페르시아만 인근 6개 아랍 산유국들(바레인, 쿠웨이트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)이 결성한 국제경제협력체

구분	2009년	2025년
인도 성인의 은행계좌 보유율	17%	80% 이상
신분증 발급률	4%	68.4%
스마트폰 보급률	37%	95%

- 아시아, 특히 ASEAN 지역은 오히려 지역 다자간 협력(지역화(regionalization))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(Suweijiang, PwC)
  - 에너지 안보,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간 연결성(interconnectivity)이 지역 안정성을 촉진한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
  - UK-ASEAN 비즈니스 협의회는 ASEAN 에너지 센터 CEO를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 진행
- 중동은 일자리 창출, 기술 교류, 문화적·종교적 요구 충족 등을 위해 아시아와 연결 확대 중(Michael Eldridge, State Street)
  - 디지털·녹색금융(그린 공급망 구축, 그린 본드 발행), 이슬람 금융\* 등에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됨
    - \* 이슬람 금융 : 중동과 동남아(특히 UAE, 사우디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)에서 샤리아 기반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이를 중심으로 지역 간 자금 흐름이 활발히 발생
  - 최근 FTA 등 다양한 협약 활발.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협정이 아니라 실제 무역 거래를 더욱 원활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
-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 재편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역할과 외교 채널이 점점 더 중요한 기반으로 부각 (Adrian Cartwright, Clifford Chance)
  - City of London은 수십 년간 규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큰 자산으로 작용
  - 특히, ① 과거 금융 위기를 극복한 집단 경험(collective muscle memory), ② 투명하고 명확한 영국의 법원 체계 및 규제, ③ 글로벌 금융기업 간 실무 insight를 수집·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영국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평가
- 실제 영국은 ASEAN·중국·인도를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안정적·지속적으로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(Suweijiang, PwC)
  - 영국은 2024년부터 6개월간 중국과의 EFD(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)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
  - 인도와의 FTA 협상, ASEAN과의 공식 대화 파트너 지위 확보, CPTPP 가입 등 주도

- 네팔에서 ‘Green Growth Nepal’ 프로그램을 주도, 향후 5년간 런던 자본시장을 활용해 네팔 최초 국가 단위 녹색금융채권 발행 지원 예정
- ASEAN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·기술·공급망 등 실질적 지원 예정
- 영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4가지 과제 제시(Michael Eldridge, State Street)
  - ① 국제 무역에서의 대화 선도, ② 글로벌 및 국내 자본 흐름 마찰 최소화, ③ 글로벌 은행 서비스의 확장, ④ 인재 유치 및 정착 관련 장기 전략 수립
  - 특히, 영국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졸업 후 정착하지 못하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음
- 수십년 간 형성된 금융 생태계 및 위기 극복 경험을 통해 CBDC 등 디지털금융에 대한 원활한 대응 기대(Adrian Cartwright, Clifford Chance)
  - 영국은 이미 법률·기술 인프라 면에서 CBDC 도입이 준비되어 있음
  - 실질적으로 결제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, 실용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

## □ Speakers

- Andrew Griffith MP, Shadow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and Trade
- Nicola Watkinson, Managing Director, International, TheCityUK (Chair)

## □ 주요 내용

- 금융·전문서비스 산업은 성장전략의 핵심축
  - 국가 경제성장은 금융과 전문서비스 산업 없이는 불가능
  - 영국 정부가 이 금융산업을 “기계적으로” 자랑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, 그 “산출물 (wealth creation)”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함
- 영국의 강점은 ‘뉘앙스를 이해하는 국가’ 라는 것임
  -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영국은 다양성과 포용성, 역사적 외교 감각을 통해 ‘중재자’ 역할을 할 수 있음
  - 다양성과 법치주의, 영어권, 평화로운 정권 이양 등을 전략자산으로 적극 홍보해야 함
- 탈 EU 이후의 현실적 도전과 정책적 요구
  - EU와의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다면 산업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협상이 필요(“EU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과 똑같이 데스크맵핑\* 등 beggar-by-neighbor 방식으로 자본시장에 마찰을 일으킴” )
  - \* EU의 데스크맵핑 : Brexit 이후 EU 내 런던의 금융회사들이 실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(영국은 해당 조사가 EU의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영국의 금융업을 인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)
  - EU 및 아프리카와의 인접성, CPTPP 회원국,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 지정학적 유리함을 적극 활용

□ **Speakers**

- **The Rt Hon Douglas Alexander MP**, Minister of State (Minister for Trade Policy and Economic Security) at the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and Minister of State at the Cabinet Office
- **Emma Rachmaninov**, Partner, Freshfields (Chair)

□ **주요 내용**

- 서비스 중심 경제에 맞춘 무역 전략 재정비
  - 영국은 GDP의 81%가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는 서비스 중심 국가임
  - Brexit 이후 공식적인 무역 전략이 부재했으며, 이제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인 무역 전략을 수립 중
  - 과거 FTA 체결 수에 집착했던 무역 정책을 넘어 비관세 장벽 해소 필요(전문 자격 상호 인정, 인력 이동, EU·스위스와의 법률적 일치성 확보 등 서비스 무역 방해 요소 제거)
- 국제 파트너십 강화
  - EU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(영국 무역의 46% 차지), 미국과의 관계 강화 필요(18% 차지)
  - 2025년 5월 19일 UK-EU 정상회의 예정
  - 걸프협력회의(GCC) 회원국과 FTA 추진, 홍콩·중국·아부다비 등 아시아 및 중동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
  - 이는 영국이 “다시 열린 시장”임을 알리는 국제적 신호로 해석될 것임
- 금융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재확인
  - 영국은 세계 2위 서비스 수출국(1위 미국)
  - 금융·법률·자산운용·보험·컨설팅 등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, 정부는 정책 설계에 이러한 역량을 적극 반영할 계획
  - 영국 정부는 G7 중 가장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. 이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신뢰 회복의 기반을 제공할 것
  - 강점을 홍보하여 영국이라는 나라가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여겨지고, 동시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

## □ Speaker

- Jessica Rusu, Chief Data,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fficer, Financial Conduct Authority

## □ 주요 내용 : 영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

- 영국은 보험, 파생상품, 원자재 시장에서 여전히 세계 선도국이며, 최근 기술(AI 등)이 금융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음
- FCA는 최근 5개년 전략을 통해 다음 3가지에 집중함
  - 신뢰 구축, 위험의 재조정(risk rebalancing), 경제 성장 지원
  - FCA는 결과 중심의 규제(outcomes-based regulation)를 통해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
- 영국의 혁신금융 인프라를 통해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90% 이상이 실제 인가 승인, 비참여 기업 대비 더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
  - Regulatory Sandbox(세계 최초 규제 실험 공간으로, 100개국 이상 벤치마킹), Digital Sandbox, AI Lab(AI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generative AI 모델 등의 기술 리스크 분석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)
- FCA의 Digital Assets & Crypto와 Open Finance
  - 암호화폐와 관련해 FCA에서 다양한 국제기구(IOSCO, FSB, FATF)와 협력 중
  - 2024년 발표한 UK crypto regulation roadmap을 바탕으로 규제 기반 정비
  - 스캠 웹사이트 폐쇄, 소비자 경고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 중
  - 오픈뱅킹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
  - MYFCA 디지털 포털 출시로 데이터 제출,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합 관리, AI 기반 상담 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대응 효율화(사용자 중심 설계)
- 금융시장 개혁
  - 상장규칙 개편, 자본규제 70% 축소
  - Pre-Application Support Service(PASS, 인가 전 기업 대상 컨설팅) 확대
  - 감독 인력 50% 증원 예정